

□ **개최배경**

- 승자독식과 패자전몰의 정치환경, 견제와 균형의 원칙 훼손 등 **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**가 국민적 피로감과 불신을 초래
- 상생과 화합을 위한 경기도의 **“연합정치”**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혁신적 모델로 **법적·제도적·문화적 토대 빈약**
- 지난 1년의 성과를 **학술적 관점**에서 평가하고 **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**

□ **개 요**

- 일시장소 : 2015. 12. 1.(화) 14:00~18:00 / 경기대학교
- 주 관 : (사)한국정책학회
- 참여대상 : 국회의원, 도의원, 대학교수, 언론인, 공무원 등 300명
- 주요내용 :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, 제도적 공고화 및 발전방안

□ **총 평**

- 상생의 정치 첫발, 행정과 정치가 지향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**긍정적 평가가 우세**하고 글로벌스탠다드로 발전 가능성도 언급
- (새로운 발전방안)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**“분권형 개헌”**,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**“연정기본조례”** 제정, 지방세율 등 조정으로 **“연정재원확보”**, 시민참여를 통한 **“연정감시단 운영”** 등 제시
- (아쉬운 점) 시민사회 협력, 의회 내부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등 **비공식적 의사결정과정**과 연정의 법적·제도적 접근은 부적합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제도화는 쉽지 않다는 아쉬운 점 지적
- (결론)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 필요, 경기연정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기대

※ KBS 뉴스9(경인), OBS 뉴스M, MBN 뉴스 등 3개 방송사 및 다수 지방신문 보도